

EDU-14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1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1. 연체·불법사금융·채무조정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?

- ☐ A.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 등 필수생활비 바닥선을 먼저 정한다.
- ☐ B.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
- ☐ C.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
- ☐ D.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

2.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?

- ☐ A. 현재 보이는 금액만
- ☐ B. 비용·위험·기한·보호·증거
- ☐ C. 광고 순위와 후기 수
- ☐ D. 친구가 선택한 상품

3.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?

- ☐ A. 기억해 둔다.
- ☐ B.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
- ☐ C. 계약서·설명·거래·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.
- ☐ D.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

4.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☐ A.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
- ☐ B.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
- ☐ C. 신청·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.
- ☐ D.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

5.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?

- ☐ A. 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
- ☐ B.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
- ☐ C.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·기한·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.
- ☐ D.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

EDU-14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2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6. 사례 '카드 돌려막기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모든 채무와 필수비를 적고 추가 차입을 멈춘 뒤 상담한다.
- ☐ B. 한도가 남은 카드로 갚는다.
- ☐ C. 전화번호를 바꾼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7. 사례 '미등록 대부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등록 여부와 계약·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송금·추가정보 제공을 멈춘다.
- ☐ B. 급하니 먼저 받는다.
- ☐ C. 가족 주소까지 준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8. 사례 '가족·직장 협박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녹음·문자·통화기록을 보존하고 경찰·금감원·법률구조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.
- ☐ B. 요구한 돈을 급히 보낸다.
- ☐ C. 증거를 삭제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9. 사례 '여러 채무 연체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채무 전체를 공개하고 공적 상담에서 통합 가능한 절차를 비교한다.
- ☐ B. 가장 무서운 연락부터 임의로 갚는다.
- ☐ C. 한 채무를 숨긴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10. 사례 '회생과 워크아웃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소득·재산·채무 종류·연체·비용·기간을 놓고 공적 상담한다.
- ☐ B. 대행업체에 선입금한다.
- ☐ C. 서류를 허위로 만든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EDU-14 정답과 해설 · 3/3

문항별 정답과 선택지 해설

1. 정답 A

- A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 등 필수생활비 바닥선을 먼저 정한다.
- B. 이 선택은 '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 등 필수생활비 바닥선을 먼저 정한다.
- C. 이 선택은 '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 등 필수생활비 바닥선을 먼저 정한다.
- D. 이 선택은 '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 등 필수생활비 바닥선을 먼저 정한다.

2. 정답 B

- A. 이 선택은 '현재 보이는 금액만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B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C. 이 선택은 '광고 순위와 후기 수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D. 이 선택은 '친구가 선택한 상품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
3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기억해 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B. 이 선택은 '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C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D. 이 선택은 '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
4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C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
5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B. 이 선택은 '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C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D. 이 선택은 '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6. 정답 A

- A. 연체 전에도 상환곤란 상담을 시작한다. 돌려막기는 원금보다 비용과 채권자 수를 늘릴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한도가 남은 카드로 갚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연체 전에도 상환곤란 상담을 시작한다. 돌려막기는 원금보다 비용과 채권자 수를 늘릴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전화번호를 바꾼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연체 전에도 상환곤란 상담을 시작한다. 돌려막기는 원금보다 비용과 채권자 수를 늘릴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연체 전에도 상환곤란 상담을 시작한다. 돌려막기는 원금보다 비용과 채권자 수를 늘릴 수 있다.

7. 정답 A

- A. 실제 받은 돈과 갚으라는 돈을 기록한다. 불법 여부와 반환 범위는 금융감독원·법률구조기관에 상담한다.
- B. 이 선택은 '급하니 먼저 받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실제 받은 돈과 갚으라는 돈을 기록한다. 불법 여부와 반환 범위는 금융감독원·법률구조기관에 상담한다.
- C. 이 선택은 '가족 주소까지 준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실제 받은 돈과 갚으라는 돈을 기록한다. 불법 여부와 반환 범위는 금융감독원·법률구조기관에 상담한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실제 받은 돈과 갚으라는 돈을 기록한다. 불법 여부와 반환 범위는 금융감독원·법률구조기관에 상담한다.

8. 정답 A

- A. 안전과 증거 보존이 먼저다.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부당하게 알리는 추심은 제한될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요구한 돈을 급히 보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안전과 증거 보존이 먼저다.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부당하게 알리는 추심은 제한될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증거를 삭제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안전과 증거 보존이 먼저다.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부당하게 알리는 추심은 제한될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안전과 증거 보존이 먼저다.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부당하게 알리는 추심은 제한될 수 있다.

9. 정답 A

- A. 전체 채무가 보여야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. 담보·세금·보증 등은 절차별 취급이 다를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가장 무서운 연락부터 임의로 갚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전체 채무가 보여야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. 담보·세금·보증 등은 절차별 취급이 다를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한 채무를 숨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전체 채무가 보여야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. 담보·세금·보증 등은 절차별 취급이 다를 수 있다.

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전체 채무가 보여야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. 담보·세금·보증 등은 절차별 취급이 다를 수 있다.

10. 정답 A

A. 제도 이름보다 요건과 결과를 비교한다. 법원 절차는 법률상담, 신용회복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확인한다.

B. 이 선택은 '대행업체에 선입금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제도 이름보다 요건과 결과를 비교한다. 법원 절차는 법률상담, 신용회복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확인한다.

C. 이 선택은 '서류를 허위로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제도 이름보다 요건과 결과를 비교한다. 법원 절차는 법률상담, 신용회복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확인한다.

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제도 이름보다 요건과 결과를 비교한다. 법원 절차는 법률상담, 신용회복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확인한다.